나를 위한 선택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정시2차 1.20~2.10
062)520-2555

광주 -5/1℃ 목포 -4/2℃ 여수 -4/2℃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 | 226-0180

단기 4344년 (음력 12월 1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84호 1판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3조5천억 과학비즈니스벨트 쟁탈전

"광주 유치 총력전 펴자"

내일 姜시장-지역국회의원 대책 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싼 경쟁구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각계 각층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 강원도와 부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든 유치전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7년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향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공동유치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치 당위성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9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첫 광주시·민주당의 당정협의회가 21일 오전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애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회 및 최고회의에서 기존 입장의 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를 주장하며 파열음이 일자 당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충청행' 당론 역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당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청권 등 다른 지역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적인 접근 ▲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 ▲최소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호남권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서구을)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을 통해 광주가 충분히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져올 역량이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당론을 정면반박했다. 김동철 의원(광산구갑)도 "충청도에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낙후된 광주·전남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명분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동구)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1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고, 이용섭 의원(광산을)은 "정당은 중립을 지켜야하며 야당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유연한 주장을 폈다.

광주시는 지역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당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기초·응용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 뒤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제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는 광주·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얼음벽 된 구제역 소독약 연일 계속되는 한파(寒波) 속에 18일 화순군 너릿재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약이 얼어붙으면서 중앙분리대에 거대한 얼음벽이 생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 구제역 확산 계속 전남은 AI 소강 상태

백신 접종 완료

'구제역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나오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과 영월군 수주면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구 북구 연경동 한우농가와 충남 예산 신암면 돼지농가에 이어 새롭게 구제역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구제역은 7개 시·도, 55개 시·군, 131곳으로 늘었다. 살처분·매몰 규모도 4312농가, 216만4920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충남 예산은 전체 충남지역 예방백신 접종률이 100%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다 인근 지역인 홍성, 당진 등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밀집해있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설을 불과 보름 앞두고 상당수 지역에서 일제히 설 전에 소를 도축·수매하려 하고 있어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20일만에 추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AI는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 수가 19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AI의심신고는 모두 40건으로 이중 고병원성AI로 확진된 곳은 19곳이다.

한편, 전남지역 모든 소 54만5000마리와 종돈 돼지 11만4000마리에 대해 실시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이날까지 모두 완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大寒…당분간 한파 계속

서해안 일부 눈

대한(大寒)인 20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북은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다"며 "서해안 지방과 내륙지방은 새벽에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지역도 있겠다"고 19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3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일부 지역 1cm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올해 기온 특성은 예년과 달리 북부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설이 다가오는 다음주까지 추위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기온은 이달 들어 지난 5일 하루를 제외하고 평년에 비해 2~3도 낮은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

여수산단 정전사고 정밀조사 착수

한전-업체 책임공방 가열

수백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등 입주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여수산단을 방문,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19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여수산단 정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합동조사단을 여수산단에 파견,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한국전기연구원 오태규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번 정전 사고로 사흘째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GS칼텍스와 삼남석유화학 등 3~4곳을 비롯해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나머지 20여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전 원인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전과 GS칼텍스 등 기업들을 상대로 원인 규명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용성선로는 분리해 제작사인 현대중공업으로 옮겨 조사 중이다.

한전과 GS칼텍스 등 입주 기업들은 정전 사고 원인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여수산단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여수화력발전소가 과부하를 우려해 여수화력-GS칼텍스 간 전용전력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정전시간이 20여분이나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입주기업이 순간 전압 강하를 막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 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전 책임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UPS 등 보호장치를 200여개 보유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정전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한전에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한전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정은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내 26개 석유화학 업체들의 정전 사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히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패키지이벤트
객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70,000
웨딩 및 돌잔치 50인 이상 가능(패키지할인)
칠순 및 각종 세미나 환영(대, 중, 소 연회장 완비)
행사 메뉴 : 양식, 한식(전골-탕), 뷔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